

[심의 총평] 무대예술과정

○ 일시 및 장소

- (사전검토) 2018. 03. 23(금) ~ 04. 05(목) / 재택심의
- (1차 서류심의) 2018. 04. 06(금) 11:00~12:00 / 예술가의집 세미나실1
- (2차 인터뷰심의) 2018. 04. 06(금) 13:00~17:00 / 예술가의집 세미나실1

○ 심의위원(가나다순) : 공연화, 안창용, 어경준, 정병목, 피정훈, 하성욱

1. 심의 과정

- 2018년도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 무대예술과정 공모에는 총 15명이 지원신청하였으며 지원심의회는 1차 서류심의, 2차 인터뷰심의로 총 2차례에 걸쳐 진행되었다.
- 무대예술분야는 위원회 심의위원 후보단이 구성되지 않아 2018년도 주장사진을 심의위원으로 위촉하여 지원심의회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, 총 15건의 지원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사전에 발송하여 개별검토를 진행하였다.
- 2차 인터뷰심의회는 심의대상자 총 15명 중 불참자 2명(음향)을 제외한 13명이 참석했다.
- 2018년도 무대예술과정의 중점운영방향은 자기주도 학습과 다양한 시도이다. 지원심사의 방향도 ‘지원자들이 스스로 진행할 수 있을 만큼의 역량을 가지고 있는가’와 ‘지금까지 진행하던 작업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도를 추구하느냐’를 염두에 두어 심사를 진행하였으며, ‘아카데미 과정과의 부합성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선발자 9명을 선정하였다.

2. 심의 총평

- 무대분야의 경우 경력의 전환기에 고민하는 바를 새롭게 시도하려는 지원자의 의지가 강하였고 이것이 결정에 주요 역할을 하였다.
- 음향분야는 디자인과 시스템 두 분야로 나누어 진행하였는데, 지원자들의 명확한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 연구 방향에 있어 두 분야의 경계가 모호한 부분이 있었으나 디자인의 기본 역량을 보완하려는 지원자와 시스템으로 디자인의 영역을 실험하려는 지원자를 디자인, 시스템 분야에 나누어 선발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.
- 영상디자인 분야의 경우 역시 연구 방향에 대한 모호성이 있으나 영상제작에 대한 기본 역량과 현장구현 능력을 발전시키려는 의도를 높이 평가하여 선정하였다.
- 조명분야의 경우 조명디자인에 대한 기본역량을 보완하려는 수업 의지가 강하고, 다양한 공연 형식에 대해 조명디자인을 적용하려는 실험의 의지를 높이 평가하여 선정하였다.
- 전반적으로 지원자들의 기존 작업 관성에서 탈피하려는 의지가 강하고 새로운 접근에 대한 욕구가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. 무대예술 분야는 기존 창작 환경에서 상대적으로 수동적으로 머물러 있었으나, 이번 아카데미 사업이 청년 예술가들 혹은 예술 지망생들의 적극적인 창작의지를 고취하고 스스로 자기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좋은 계기가 될 수 있길 바란다.